



현대화 꿈 구축하고 새 청사진 함께 그리자

2024년 전국 인대 정협 회의 특집

전국인대 대표 한영철:

자연보호구사업을 잘해야



올해의 정부사업보고는 “생태 문명 건설을 강화하고 친환경 저탄소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제기했다. 이에 장백조선족자치현 당위 부서기이며 현장인 한영철은 “18차 당대회 이래 국가에서는 생태문명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적지 않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새로운 발전 단계에 우리는 생태환경보호에서 고품질 발전의 요구를 체현하면서 확고부동하게 생태우선, 전환

경 발전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영철은 자연보호구는 우리나라 생태기능구의 핵심부분이고 생태문명 건설을 강화하는 중요 내용이기도 하다면서 보다 큰 강도, 보다 높은 표준, 보다 엄격한 요구로 자연보호구사업을 잘하여 보호구의 조정 계획 발걸음을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나라 많은 지역의 보호구는 최적화 조정 단계에 처

해있어 생태 우세가 아직 고품질 발전을 견인하는 산업우세, 경제우세, 발전우세로 완전하게 전환되지 못했다.” 한영철은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자연보호구 조정 진도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보호구를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확보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잘해야 한다. 첫째, 생태효익, 경제효익, 사회효익을 총괄하여 생태보호와 생태관광의 상호융합 상호촉진,

상호보완을 실현해야 한다. 둘째, 먼저 시설을 건설하고 후에 보호구를 확보하는 등 역사적으로 남겨진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하고 자원 낭비를 피하여 지방의 재정 압력을 완화시켜야 한다. 셋째, 보호구 내 및 주변 촌마음의 발전을 촉진하여 촌민들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 인민넷 - 조문판

전국정협 위원 권장자:

청정에너지산업 다그쳐 발전시켜야



정부사업보고에서는 산업구조, 에너지구조, 교통운수구조, 도농 건설과 발전의 녹색 전환을 추진할 것을 제창했다. 청정에너지 발전은 경제사회 녹색 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일환이다. 청정에너지 발전을 계속 주목해왔던 권장자는 전국 당회 기간에 훈춘의 실제와 결부해 적극적으로 건언헌책하고 훈춘의 청정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킬 것을 호소했다.

권장자는 다음과 같이 표시했다. 훈춘시는 중국, 러시아, 조선 3개 나라가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있기에 지리적 우세가 특목하다. 린접해있는 러시아 극동지역은 천연가스자원이 풍부하여 훈춘은 청정에너지산업을 발전시킬 잠재력이 거대하다. “훈춘의 청정에너지 수입과 고효율 리용을 추진하고 청정에너지산업 발전을 다그치며 새로운 동북 청정에너지 고지를 구축하는 것은 세시대 동북전면진흥추진 좌담회에서 한 에너지 안전 수요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의 구체적 조치이다. 훈춘의 청정에너지산업 발전의 가속화는 길림성 나아가 동북지역 에너지 공급과 수요간의 모순을 완화하고 야금, 화학공업 등 산업의 집결을 촉진하며 동북의 전면 진흥을 추동할 수 있다.”

“근년대 훈춘시는 일련의 청정에너지 기업을 유치했고 청정에너지 수입 경로를 원활히 했으며 국제협력 기초가 량호하다. 그러나 여전히 수입 규모가 작고 수입 방식이 단일한 등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비추어 권장자는 중국 - 러시아 청정에너지 파이프 수송을 최적화하고 철도와 해상 연합운송, 도로와 해상 연합운송, 파이프 수송 등 다양한 방식의 러시아 청정에너지 수입 통로를 형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청정에너지 국제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권장자는 표시했다. 그는 더 많은 중앙기업들이 러시아 극동지역의 청정에너지 개발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청정에너지 수입, 저장 및 운송, 전환, 가공 기지 건설 등 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훈춘을 동북 나아가 국가 청정에너지 비상비축기지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민넷 - 조문판

전국인대 대표 옥명희:

빙설경제에 ‘홍색 엔진’ 달아주자



전국인대 대표이며 왕청현향신(恒信) 건축설치유한책임회사 종업원인 옥명희는 “‘길림’ 지리표지를 단 특색 빙설관광산업

을 일떠세우는 최적의 경로는 바로 ‘홍색자원 + 백색빙설’의 깊이 있고도 유기적인 융합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빙설경제에 강력한 ‘홍색 엔진’을 달아주어 ‘랭’자원을 ‘열’산업으로 변화시키고 홍색빙설관광 특색산업의 길을 걸어내는 것이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 우리 성은 세계 빙설 황금위도대에 자리해있으며 세계급 랑질의 분설자원을 갖고 있는바 눈의 품질이 좋고 지속 시간도 길어 유럽의 알프스산맥, 북미의 로키산맥과 그 아름다움을 견줄 만하

다. 우리 성의 홍색관광자원은 수량적으로 많고 특색 또한 돌출하다. 통화시 양정우렐사릉원, 사평시 홍색관광 계열 풍경구, 백산시 홍색관광 계열 풍경구 등 23곳이 ‘건당 백년 홍색관광 백갈래 정품 로선’에 들어갔다. 옥명희가 보건대 이는 모두 우리 성 홍색 빙설관광 특색산업의 발전 조건이다. “동북항일련군 투쟁, 4차 랑감보위전역, 지원군 제9병탄 조선전쟁 출전 등 모두가 겨울철에 진행되었다. 관련 빙설관광 체험항목을 내와 관광객들로 하여금

당시 혁명선배들의 간고한 생존환경, 전투환경을 느껴보도록 할 수 있다.” 옥명희는 이를 위해서는 ‘홍색교실’을 ‘빙천설지’에 설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즉 국가급 청소년홍색빙설애국주의교양기지를 건립하고 전국의 청소년들에게 겨울철 연합 활동을 전개할 것을 호소해 길림의 빙설을 체험하고 길림의 홍색문화를 알아가도록 하면서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쉽게 온 것이 아님을 빙설 속에서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길림의 빙설이

온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는 깊이가 있도록 해야 한다.

옥명희는 또 ‘단독분투’를 ‘집단작전’으로 바꾸고 계속해 ‘동계올림픽은 북경에서, 체합은 길림에서’의 활동을 잘해나가며 후동계올림픽시대의 빙설경제 발전 기회를 빌어 국가급 빙설경기를 진행하고 빙설문화 제품이 길림에 정착하기 행동을 벌이며 치중점을 우리 성 홍색문화와 빙설문화 융합 발전에 두고 우리 성 홍색문화와 길림 빙설이 함께 전국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길림일보

전국인대 대표 손원화:

코크스로기계에 ‘스마트두뇌’ 설치해야



전국인대 대표이며 대련화예중공업그룹유한회사 수석전문가인 손원화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올해 정부사업보고는 현대화 산업체제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신질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할 것을 제기했으며 이 임무를 둘러싸고 ‘제조업 기술 개조 및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실시’, ‘전통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 전환 촉진’을 명확히 했다. 이는 장비제조 분야의 일군들에게 더욱 큰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손원화는 대형 코크스로(焦炉机) 기계설비의 지능화 설계에 종사해온 지 30년이 되었다. 그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 기술이 제조업의 모든 영역, 모든 고리에 점점 더 많이 융합되고 연구개발 모델, 생산방식 및 조직형태의 재구성을 가속화하며 생산효율성과 제품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크스로 코킹(炼焦)을 레로 들면 전통적인 인상 속에 코크스로 작업환경은 연기에 그을리고 먼지가 가득하다. 하지만 스마트 코크스로 현장은 연기와 먼지가 보이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무인 조작 코크스로 차량이 서로 협력하면서 석탄 적재, 평탄(平煤),

문 열기, 코크스 밀기(推焦) 및 코크스 유도 등 각종 지령을 완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변화는 코크스로기계에 ‘스마트두뇌’를 장착한 덕분이다. 코크스로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 연구팀은 원격 제어시스템, 디지털트윈(数字孪生), 인간-기계 감지 안전, 고장 사전 진단 및 전체 수명주기 관리와 같은 많은 기술적 문제를 극복했다. 현재 대련중공업이 개발한 ‘스마트두뇌’ 코크스로기계는 2년

연속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24시간 자률주행을 실현하여 철강 및 코크스로 기업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새로운 무기’로 되었다. 손원화는 계속 기술혁신으로 산업혁신을 촉진하고 산업사슬 공급망의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며 더 많은 국제 선진 코크스로기계를 개발하고 장비제조업의 첨단화, 지능화, 녹색화 발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더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 인민넷 - 조문판

전국정협 위원 최해양:

타성 타지방 치료 의료구조 즉시 결산 개통해야



올해 전국 당회에서 전국정협 위원이며 중국민주동맹 귀주성 위원회 부주임이며 귀주대학 인문사회과학처 처장인 최해양은 〈타성 타지방 치료 의료구조(救助) 즉시 결산을 개통할 데 관한 제안〉을 내놓았다.

최해양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의료구조는 의료보험의 ‘3중 보장’ 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서 서류카드를 작성한 빈곤해탈인과 같은 특수 곤란군체가 질병으로 인해 다시 빈곤해지는 것을 방지함에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구조는 당분간 타성 즉시 결산을 할 수 없다. 하여 보험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한 지방에 돌아가 산발적인 수동 결산을 진행해야 한다. 이는 더 많이 뛰어나야 하고 대금을 내야 하는 등 보험가입자의 압력을 증가시킨다. 또 군중들이 의료구조정책을 잘 알지 못해 결산받아야 할 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어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초래하고 재빈곤 위험에 빠지는 등 문제가 있다.

“타성 타지방 치료 의료구조 즉시 결산을 개통하면 인민대중의 의료부담을 더욱 줄이고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야 하거나 대금할 걱정을 없애줌으로써 ‘두 지역을 오가야 하는’ 보험가입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최해양은 이렇게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국가의료보장국은 가능한 한 빨리 타성 타지방 진료 의료구조 비용 결산과 관련된 정책을 출범해야 한다. 도농 주민의 타성 타지방 진료 의료구조 즉시 결산에 정책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역간 정책의 불일치, 정보 상호 연결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구조 결산 비율의 차이를 피해야 한다. 진정으로 대중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적게 뛰어나도록’ 하며 의료구조체계의 타지방 진료 수요를 더욱 잘 충족시키므로써 기층 군중의 진료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

둘째, 국가의료보장국은 재정부와 함께 타성 타지방 진료 의료구조 자금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각 성(자치구, 직할시) 간의 자금 청산을 용이하게 하고 의료보험부서의 운영 압력을 줄이며 의료보험 취급 서비스의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 인민넷 - 조문판

전국인대 대표 김동호:

관엄상제의 형사정책 관철해 공평정의 수호해야



“형사정책 관엄상제(宽严相济, 관대함과 엄정함의 결합)는

범죄를 최대한 예방하고 감소시키며 사회모순을 해소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검찰기관은 범죄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관대함과 엄정함, 가벼움과 무거움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법이 인민을 위하고 능동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국인대 대표이며 흑룡강성 상주시 어지향 신흥출당지부 서기인 김동호는 이같이 말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사업보고에서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실행하여 엄정해야 할 것은 엄정하고 관대해야 할 것은 관대하며 처벌과 죄행이 상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호는 조사연구중에서 검찰기관이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엄격하게 실행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한편으로는 ‘엄정함’을 시종 예누리없이 견지함으로써 국가안전과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를 단호히 처벌하

여 인민대중의 안전감을 효과적으로 증강시켰다. 다른 한편으로는 경미한 범죄, 주관적으로 악랄하지 않은 범죄 등에 대하여 법에 따라 ‘관대’한 정책을 베풀어 ‘관대함’의 교육 작용을 잘 발휘시켰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다차원, 다영역의 의법관리를 추진하고 사회관리의 법치화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중앙의 포치를 관철함에 있어 최고인민검찰원 당조는 형

사범죄의 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관엄상제의 형사정책을 깊이있게 관철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검찰기관은 관엄상제 형사정책을 계속 실행하고 법에 따라 사건 처리를 규범화하며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는 자발적인 진실성, 양형 건의의 합법성과 적절성을 보장함으로써 인민대중들이 매한건의 사법사건에서 공평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김동호는 말했다.

/ 인민넷 - 조문판